통도사, 화엄산림대법회 30일 대장정 시작

12월 1일, 경내 설법전서 입재법회 봉행

서축암 감원 우진스님 입재 법문
"경전 지혜 삼아 마음을 비추라"
현덕 스님 "한달 간 수행 정진"
12월 30일까지 오전·오후 법문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영축총림 통도사는 12월 1일 설법전에서 '화엄산림대법회'를 입재했다. 사진은 서축암 감원 우진 스님이 입재법문을 하는 모습.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가 12월 1일 설법전에서 '화엄산림대법회'를 입재했다.

이날 통도사 경내는 산문부터 도량까지 차량이 줄을 이었고, 불자들은 설법전과 앞마당까지 빼곡히 자리를 잡고 기도했다. 매년 열리는 통도사 화엄산림대법회는 전국의 불자들이 참여하는 화엄법회로 30일 동안 이어지는 대장정이다. 이 기간동안 불자들은 통도사에서 매일 기도하며 법문을 듣고 인연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도한다. 또한 전국의 대강백 스님 30여 명이 법사로 참여해 다양한 해설과 화엄경의 도리를 전해 매회 새로운 지혜를 얻고 있다. 매년 참석하는 불자들의 수행 정신을 독려하기 위해 통도사는 30회와 25회 등 연이어 참석한 불자들에게 성만패와 기념 메달을 전달하고 있다.

입재 법문은 전 통도사 강주이자 서축암 감원 우진 스님이 맡아 화엄경에 대해 안내했고, 불자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우진 스님은 "대방광불화엄의 '방'은 '방정'의 방이다. 상장을 받으면 품행이 방정하다는 표현이 있는데 불교에서는 지혜를 의미한다"며 "경전을 지혜로 삼고 등불로 삼아 자신의 마음을 비춰야 한다. 마음을 알고 본성을 알아 의심이 없어야 한다. 이것이 화엄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법문"이라며 "이렇게 직접 화엄경을 만나고 지혜를 얻는 기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화엄경 법문을 듣는 것만으로도 인간계와 천상에서 최고의 복을 짓는 것"이라 강조했다.

이날 우진 스님은 오전 입재 법문에 이어 오후 법회에서는 '화엄경 현수품'을 대중과 함께 독송 정진했다.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은 "화엄산림법회에 동참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도량을 찾아주시고 수고 봉사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올린다"며 "도량에서 법사 스님들의 법문을 듣고 정진하며 수행의 열락을 누리시길 바란다. 법당에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통도사 유튜브를 참고해 법문을 듣고 수행정진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한 달간 있을 화엄법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도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통도사 화엄산림법회는 전국 최대 최장의 법석으로 유명하다. 통도사 개산조 자장 율사는 화엄의 대가로 〈화엄경〉을 최초로 강설한 스님으로, 화엄산림법회는 자장 율사의 법연(法筵)을 이어가는 법석의 장으로 의미가 크다.

이번 입재일을 시작으로 30일 동안 이어져 12월 30일 회향한다. 회향일에는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가 입법계품과 회향 법문을 설한다.

화엄산림법회 사시불공은 오전 10시, 법문은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각각 봉행된다. 일요일에는 오전 9시 30분 불공을 시작해 오전 10시 20분 법문을 이어간다. 매일 오후 법문 전 오후 1시 '약찬게' 독송, 매주 토요일 저녁예불 후 '법성게' 정진, 일요일에는 오전 법문 후 천도재가 봉행된다. 12월 11일과 25일에는 월하 스님, 벽안 스님 추모다례가 열려 오후에만 법회가 개최된다.

심산 스님, '대원상 상금' 포교불사에 회향

12월 1일 홍법사서 전달식 개최
싯다르타 印공연 1000만원 기부
몽골 나무심기 불사에 500만원



심산 스님이 김면수 뮤지컬 싯다르타 프로듀서에게 기금을 전달하고 있다.

"저의 해외 포교 원력이 이뤄진다면 한국어를 사용하는 세계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국말로 소통하고 한국불교를 체험하는 교류의 장이 이뤄질 겁니다. 한국불교의 전법 활동은 멈추지 않아야 하고 라오스에 불사한 한국어과 건물동과 몽골 나무 심기는 그 원력의 시작점입니다."

제21회 대원상 출가부문 특별상을 수상한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은 상금 1500만원을 해외 문화 포교와 인재불사에 회향하고, 전법포교에 대한 원력을 밝혔다.

12월 1일 홍법사 대광명전에서 열린 대원상 상금 회향식에서 심산 스님은 뮤지컬 싯다르타 팀에 1000만원,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에 500만원을 전달했다.

심산 스님은 인터뷰를 통해 문화포교 및 인재불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심산 스님은 "뮤지컬 싯다르타는 인도 공연을 준비 중이다. 문화가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힘을 알고 있으며 부처님의 일대기를 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불사라고 생각한다"며 "부산에서 뮤지컬 공연을 보고 인연이 되었는데 이번에 해외공연 소식을 듣고 회향의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나래문화재단은 2019년부터 몽골나무심기를 진행 중이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가 동참하기 위해 대학생 5명을 추천했고 몽골 나무 심기 해외 봉사 참여 뜻을 밝혔다"면서 "경험은 무엇보다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 생각했고 지원금을 보태는 마음으로 전달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미약하지만 꾸준히 해왔던 일들이 저희에게도 큰 보람이었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 다양한 국가들에서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심산 스님은 전국 군법당의 불사 및 국내외 학생들을 위한 장학 사업에 기여한 공로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국내 청소년뿐 아니라 몽골, 라오스, 인도, 태국 등 다양한 국가의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 전통문화와 불교 사상을 알리기 위해 한나래문화재단을 설립해 포교와 교류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한편, 대원상은 대한불교진흥원을 설립한 고 대원 장경호 거사의 뜻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공주 동학사, 수진 대율사 전계 법회

11월 30일, 경내 대웅전서



공주 계룡산 동학사가 관허 수진 대율사로부터 계맥을 전수받는 대법회를 봉행했다.

공주 동학사(주지 경원 스님)는 11월 30일 경내 대웅전에서 '관허 수진 대율사 전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동학사승가대학장 명오 스님을 비롯한 강사 대일 스님, 불림 스님, 동하 스님, 도민 스님, 본엄 스님, 선효 스님 등 7명의 스님은 조계종 단일계단 계단위원, 사미·사미니 전계대화상인 관허 수진 대율사로부터 계맥을 전수받았다.

수진 스님은 법어를 통해 "동학사는 한국불교 선의 기치가 출발한 도량으로 오랜 시간 강학이 이어져 이미 율법이 존재하는 곳"이라며 "오늘 전계 받는 일곱 스님들과 사부대중은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동학사에서 부처님의 율법이 장대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수행 정진 해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동학사 주지 경원 스님은 "동학사는 1956년에 최초로 경학 비구니 전문 강원을 개원한 교육의 산실로 통일신라시대부터 지금까지 대선사들이 수행하며 화두를 타파해 선의 중흥조가 된 도량"이라며 "오늘 관허 수진 대율사로부터 계맥을 전수받아 선·교·율의 종지가 충만하고 맑은 청정도량으로 거듭났다"고 밝혔다.

이날 계를 전수받은 스님들은 발원문을 통해 청정율사가 되기를 서원했다. 일곱스님들은 "위로는 부처님의 제자, 아래로는 스승님의 제자로서 받은 가르침에서 물러나지 않고 수행 정진해 나가겠다"면서 "제자로서 무한한 수행 정진을 통해 회향하는 청정율사가 되도록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김가령 기자

퇴옹학술상, 법장 스님·신희정 강사 수상

11월 30일 고심정사서 시상식



위덕대 연구원 법장 스님과 신희정 한국교원대 강사가 제7회 퇴옹학술상을 수상했다.〈사진〉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회장 최연주)는 11월 30일 부산 고심정사에서 제7회 퇴옹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퇴옹학술상 교리부문으로 법장 스님(자립논증파의 십이연기 해석연구-제쭌 최끼곌의 티벳어본 〈연기의 총의〉를 중심으로)이 수상했으며, 응용부문에는 신희정 강사(불교 마음체계에 대한 과학적 접근이 도덕교육에 주는 함의)가 각각 수상했다.

시상식에는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원택 스님, 최연주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장, 수상자 및 학술대회 발표자 외 고심정사 사부대중이 참석했으며, 행사는 △개회사 △선정과정 보고 △퇴옹학술상 시상 및 축사 △수상자 소감 및 논문 소개 순으로 진행됐다.

법장 스님의 논문 '자립논증파(自立論證波)의 십이연기 해석 연구-제쭌 최끼곌의 티벳어본 '연기(緣起)의 총의(總意)'는 불교의 핵심 교리인 십이연기에 관한 연구이다.

신희정 한국교원대 강사의 논문 '불교 마음체계에 대한 과학적 접근이 도덕교육에 주는 함의'는 불교의 마음 체계에 관한 연구로 '불교' '과학' '도덕'을 중심 키워드로 불교 사상의 도덕교육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창의성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심정사 회주 원택 스님은 "퇴옹학술상은 인재양성을 위한 성철 대종사의 유지를 받아 제정됐다"며 "7년 동안 연구활동에 매진해준 교수들과 학자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매진해 불교 학자 양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불교합창단연, 부산불교합창제 성료

11월 30일, 부산문화회관서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는 11월 30일 부산문화회관 대강당에서 '2024 부산불교합창제'를 개최했다.〈사진〉

이 자리에는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정오 스님,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총장 석산 스님,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지원장 혜도 스님, 이윤희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 등 사부대중이 참석해 격려했다.

합창제는 먼저 부산불교연합합창단의 무대로 시작을 알렸으며, 용화선문 미룡사 바라밀합창단, 진각종 유가합창단, 범어사 금강암 금소리합창단, 한마음선원 선법합창단의 선법가가 이어졌다. 이어 범어사 합창단이 음성공양을 올렸으며, 조계종부산연합회 어린이연합합창단이 특별 무대를 선보여 큰 박수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축하공연으로 연희퍼포머그룹 '처랏'이 출연해 흥겨운 무대를 선사했다.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정오 스님은 "음악은 불립문자와 같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리를 담고 있다"며 "부처님의 가르침과 깨달음을 전하는 고귀한 예술이 되어 오늘 깊어가는 가을밤을 장식한다. 화합의 장으로 한해를 마무리하는 아름다운 행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여래종, 수해 피해 일주문 복원 회향

11월 24일 대약사사서



(재)한국불교여래종(총무원장 명안 스님)과 인왕문도회(회장 묘선 스님)는 11월 24일 옥천 대약사사에서 일주문 복원 및 수해복구 회향식을 봉행했다.〈사진〉

회향식에는 총무원장 명안 스님, 원로원장 석산 스님, 총무부원장 혜안 스님, 교육부원장 무극 스님, 문도회장 묘선 스님, 총화종 총무원장 혜각 스님, 불교인권위원장 진관 스님, 최정례 신도회장, 이창호 여래구도봉사단장 등 150여 명이 운집했다.

이번 복원을 위해 여래종 종도들을 비롯하여 인왕문도회, 남한산성 약사사 신도 등 하루 60여 명이 대약사사를 방문하여 오물 청소 및 복구 모연에 동참했다. 특히 이인웅 거사는 1000만원을 불사복구금으로 쾌척하기도 했다.

총무원장 명안 스님은 인사말에서 "갑자기 호우로 인해 당황스러울 때 한 분 한 분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이렇게 복구를 할수 있었다"며 "여러 불자님들께 감사하다. 2025년은 여래종 창종 60주년 해로 여래종이 부흥하고 불교가 힘차게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 전법 전승에 힘쓰자"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천태종 광명사, 김장김치 자비나눔 전달

11월 30일 경내 공양실서



천태종 광명사(주지 춘광 스님)가 연말연시를 맞아 김장김치를 전달하며 따뜻한 겨울 나기를 발원했다.

광명사는 11월 30일 경내 대중공양실에서 '2024 김치나눔 행사'을 개최했다.〈사진〉

참가 내빈들은 직접 앞치마와 장갑을 끼고 김치를 담았으며, 인사말을 통해 추운 연말연시 따뜻함을 기원했다. 이날 봉사자들과 함께 담근 김치는 총 1300포기이며, 금정구 주민 및 부산거주 고려인, 외국인 노동자에게 전달했다. 이날 광명사는 김장김치 뿐 아니라 라면 460박스도 전달했다.

주지 춘광 스님은 "광명사 도량에서 많은 내빈과 대중이 한자리에 모여 김장김치를 담그는 것은 정성을 담는 일"이라며 "정성 가득 담은 여러분들의 손길이 금정구 관내 이웃과 다문화가정, 복지관에 전달하고자 한다. 이번 겨울 동안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축원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30돌 개금복지관 "감사 마음 전해요"

12월 4일 '감사의 날' 개최



사단법인 안국(대표이사 수불 스님) 개금종합사회복지관은 12월 4일 부산 더스타뷔페 헤리움홀에서 개관 30주년 기념 자원봉사자·후원자 감사의 날을 개최했다.〈사진〉

행사에는 사단법인 안국 상임이사 석산 스님, 이사 태공 스님, 이사 학산 스님을 비롯해 장유정 사단법인 미소원 이사장, 박용하 이사, 류강렬 개금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등 관계자가 동참했다.

30주년 감사패는 김영욱 부산진구청장과 이헌승 의원이 수상했으며, 사단법인 미소원 및 부산도시공사 외 단체 10곳과 진용제 외 개인 후원자 4명이 '30년 주년 후원자 및 봉사자 감사패'를 수상했다. '2024년 후원자 및 봉사자 감사장'은 천지암, 주식회사 리안코트, 밝은 눈 안과 3곳과 이선우 외 개인 후원자 6명, 자원봉사자 신수두 외 10명이 수상했다.

상임이사 석산 스님은 "수불 스님을 대신해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오랜 인연을 맺어온 개금종합사회복지관은 부산불교복지의 첫 출발점이자 불교계 큰 스님들의 발자취가 남아있다. 앞으로도 발전해 복지 불국토의 기둥이 되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